

원·달러 1500원 돌파... 수입물가 급등에 생활물가 '비상'

고환율 뉴노멀 시대

다시 고개 든 인플레이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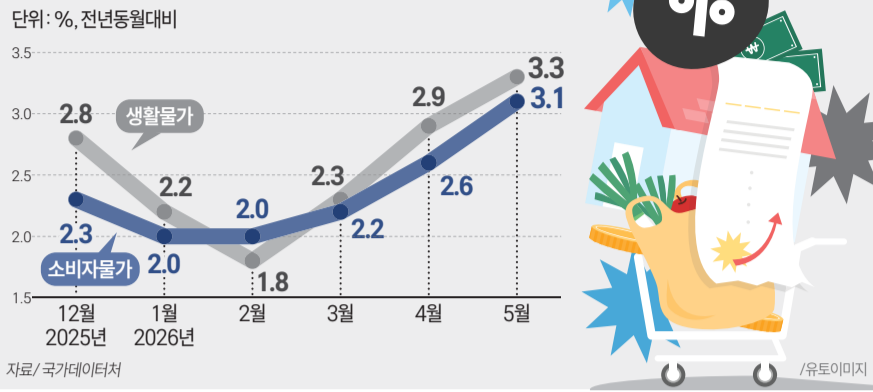
5월 수입물가, 전년비 24.8% 급등 원유·석유류 뛰며 생산비 부담 확대 기업 비용 상승, 제품값 인상 우려 식품·에너지 중심 체감물가 압박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고환율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와 원자재, 식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4.8% 올랐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20.5%보다도 상승률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원유가 전년보다 72.7% 급등했고 나프타와 병커유가 각각 84.7%, 73.2% 오르는 등 동등 경쟁 영향을 많이 받은 석유류 관련 품목의 상승폭이 컸다. 글로벌 유가(두바이유 기

소비자물가·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준)는 지난달 배럴당 평균 103.15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 올랐다.

고환율, 생활물가 덮치나

문제는 이렇게 오른 수입물가가 고환율을 만나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정유·화학·식품업체 등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으나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p) 뛰면서 3%대가 됐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23.19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쌀은 1년 전보다 13.5%, 달걀은 10.2%, 파는 15.7% 올랐다.

생활물가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과 생활품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와 직결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

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 열려났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생산자물가도 ‘꿈틀’

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2.5%였다가 3월 4.1%→4월 7.2%→5월 8.50%로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이는 사치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을 높여 생산비 부담을 키우고 결국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하반기 물가 안정 흐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coul.co.kr



>> 1면 '백화점 호조...'서 계속

외국인 관광객 늘어도 면세점 수익성 압박

면세업계는 수요와 수익성이 엇갈리는 상황에 놓였다.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주요 면세점들은 대체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상품을 달러로 매입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위축 우려로 판매가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만큼 수익성 방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인터넷면세점을 중심으로 환율 보상 쿠폰과 제휴 할인, 적립금 프로모션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마케팅 비용 증가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율 변동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화·달러 병행 표기 등 가격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국금센터 “AI가 떠받친 세계경제... 유가·금리·강달러가 하반기 복병”

AI·석유·국채·금리 4대 변수 제시 2분기 저점 뒤 회복, 메모리 호황 원유 차질 땀 유가 재급등 우려 고물가·강달러에 변동성 확대



25일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국제금융센터(국금)가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인공지능(AI) 투자와 석유시장, 국채금리, 주요국 통화정책을 꼽았다. AI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끌겠지만 고물가와 공급 충격, 강달러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 설명회에서 국금은 올해 하반기를 '고물가와 공급충격 속 AI 회복력이 시험받는 시기'로 규정했다. 세계 경제는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유가와 금리, 환율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금은 하반기 핵심 변수로 ▲AI 투자

▲석유시장 ▲국채시장 ▲주요국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 AI 투자 지속...메모리는 '구조적 호황' 기대

국금은 AI 투자가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와 증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AI 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증시 역시 AI 산업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투자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학습

인프라에서 범용 메모리와 CPU, 서버 부품 등 추론(Agentic AI) 인프라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락 국금 부장(자금유출입분석부)은 “AI 생태계 전반의 레버리지 부담에도 미국 기업들의 주도가 투자 지속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며 “투자수익성 압박과 물리적 한계, 상호 의존성 리스크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는 올해 전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 투자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인여현금흐름 감소로 외부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전력망 확충 등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장은 “향후 2~3년간 AI 투자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는 AI 인프라 수요와 장기 공급계약 확산으로 구조적인 호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 유가·환율 불안...“변동성은 계속”

국금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시장이 공급 리스크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이 가격에 선반영됐지만 실제 원유 공급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정석 국금 실장(국제원자재시장담당)은 “시장은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랍세운 운항은 재개되고 있지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인세운 유조선 흐름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금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석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 실장은 “기대와 달리 중동 석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고 문제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위기 현실화 시 국제유가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수준으로 급등한 후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강달러 기조 속에서도 경수수지 흑자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 기조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상원 국금 외환분석부장은 “현재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평균치를 보면 14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과 외국인 리밸런싱 자금 유출이 진행 중이지만 경수수지 흑자가 앞선 요인들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국 주식투자 늘고, 증시 올라... 대미 금융자산 첫 1조달러

미국 비중 47.1%, 3년 연속 최고치 증권투자 8028억달러로 증가 주도 주식 순매수 확대·현지증시 상승 영향

미국 주식 투자 확대와 현지 증시 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對)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대외금융자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396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달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금융자산이 1조1492억달러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 말보다 2042억달러 늘어 증가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1.8%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7.1%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연합(EU)이 3075억달러로

12.6%, 동남아가 2795억달러로 11.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대미 금융자산 증가는 증권투자가 주도했다. 미국 증권투자 잔액은 8028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1786억달러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13.0%, 20.4% 오른 영향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금융자산은 1398억달러로 전년보다 41억달러 줄었다. 주요 지역 가운데 대외금융자산이 감소한 곳은 중국이 유일했다.

지난해 말 대외금융부채는 1조9819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5580억달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5231억달러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동남아 3914억달러, EU 3316억달러 순이었다.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 직접투자 지분 등을 포함하는 국제투자대조표상 개념이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확대도 부채 잔액을 끌어올

렸다.

통화별 대외금융자산은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이 1조5136억달러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유로화 표시 자산은 2231억달러로 9.1%, 위안화 표시 자산은 1153억달러로 4.7%였다.

대외금융부채는 원화 표시 부채가 1조4012억달러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원화 부채는 국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보다 5224억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미 달러화 표시 부채는 4434억달러로 22.4%, 유로화 표시 부채는 421억달러로 2.1%를 차지했다.

/김주형기자 gh471@

